경기·대구·경북, 전통문화 정책 기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정책분석

송지희 · 임은호 기자

김동연(경기), 당선인 중 유일하게 불교공약 발표
홍준표(대구) · 이철우(경북) 전통문화 보존의지 뚜렷
김진태(강원)는 '물음표'


오영훈


박형준


박완수

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및 구 · 시 · 군의회 의원과 교육감 · 교육위원까지 새롭게 선출하는 대대적인 변화의 장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4,131명의 당선인들은 한달뒤인 7월 1일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사회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불자당선인은 3명에 불과하지만, 각 지역에서 불교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당선인들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불교정책 변화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후보는 광역단체장 출마자 27명 가운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불교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시선이 주목됐다. 6월 2일 개표결과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밀려 낙선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사실상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불교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됐다.

김동연 당선인은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선거를 앞둔 5월 20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강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 △정부 공조사업에 대한 협조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경기도 구축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개신교 신자임에도, 종교를 넘어선 불교의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철우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4월경 동화사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2022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를 방문해 라운딩하면서 "불교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전통불교문화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앞선 2018년 경북도지사 후보 당시에도 △전통사찰 보존 · 관리 △호국역사유적지 보전 및 홍보 △불교문화 홍보 및 관광자원화를 약속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공주 · 부여 · 청양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품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불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이를 계기로 백제불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불교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봉축법요식 등 불교계 주요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스님들과의 인연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번 선거에서는 불교종단 대구경북연합회가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준표 당선인은 당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계획을 밝혔는데, 주요인사 가운데 김재홍 조계종 前종정예경실 부실장이 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도 불자는 아니지만, 지난 1년간 임기 중 연등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며 불교계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계종이 현재 조계사를 중심으로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불사를 진행중인데다가, 유네스코 등재유산인 연등회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핵심과제들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중 정책방향에 불자들의 시각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부처님오신날 청주 용화사, 관음사, 명장사 등 사찰 곳곳을 방문해 소원등을 달고 축원문을 작성하는 등 친불교 행보를 보여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다른 의미에서 불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인사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신변보호한 조계사를 '범법자 비호세력'으로 표현하며 경찰병력 추입을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며 논란을 빚은 것. 특히 조계종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를 겨냥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보사퇴를 요구하는 등 성난 불심을 드러냈다. 김 당선인은 논란이 확대되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은 발언을 공식사과했으며, 이를 계기로 기사회생해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후 선거과정에서 불교계와의 스킨쉽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편한 시각이 남아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덕수 총리, "부처님 자비로 화합 일굴 것"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원행스님 "통합 · 전통문화"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화합을 일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한마음으로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고자 한다"며 "특히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아가겠다. 국민통합을 이끌기 위한 지혜와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진〉

이에 원행 스님은 종교화합을 비롯한 사회통합 노력과 함께,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2개 세부계획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종교화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가칭)종교평화위원회 신설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으로 선풍 계승"

5월 31일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



조계종 종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하는 법석이 열렸다.〈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31일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는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가풍을 선양하기 위해 종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종조의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총림선원 토지매각 사건' 진상 촉구 연대서명 착수

선학원미래포럼, 5월23일
전국 분원에 서명지 발송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토지를 창건주 · 분원장 의사에 반해 일방매각했다는 本紙 보도와 관련, 선학원미래포럼이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서명에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은 5월 23일 '진주 총림선원 토지매각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제하의 문건을 서명지와 함께 전국 선학원 분원에 발송했다. 특히 미래포럼은 "'사찰토지 매각'이라는 사건은 총림선원 일개 분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학원에 등록된 모든 분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재)선학원 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이사회에 예속되지 않고 창건주 · 분원장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물로 구성돼야 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조사결과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재단이 기관지 〈불교저널〉 기사를 통해 "선학원의 경우 모든 전통사찰의 토지가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처분허가신청권은 재단에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따르면 선학원 등록 분원들은 재단이 분원장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일군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한 것으로, 사실상 안정된 환경에서 수행하고 포교하고자 선학원 창립취지에 공감해 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참 주인은 이사회가 아닌 창건주 · 분원장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미래포럼은 "선학원의 이런 인식은 향후 전통사찰 뿐 아니라 선학원에 소속된 모든 분원이 제2의, 제3의 총림선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포럼은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행세를 하며 분원 토지를 주인 몰래 팔아먹는 것을 묵인한다면 그러한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은 주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뜻을 모으고 단결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창건주 · 분원장과 사부대중이 분연히 일어나서 재단 이사회가 진상조사를 하게끔 촉구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총림선원은 진주시를 상대로 선학원이 진주시에 매각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단법인 선학원도 보조참가자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희 기자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48주기 추모

5월 27일 구인사 광명전서 열반다례법회 봉행



대한불교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제48주기를 맞아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가 엄수됐다. 사부대중은 일심으로 대한민국 국운융창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했다.〈사진〉

천태종(총무원장 무원)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48주기 열반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용종정예하,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덕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스님,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엄태영 제천 · 단양 국회의원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조사님께서 일깨워주신 시대 보살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긴다"며 추모했다. 김주일 기자

